"디지털 환경 속 아동 친화적 시스템 조성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3>플랫폼 서비스 실태조사

부적절 콘텐츠·악플 무방비 노출
온라인 안전교육 문제 해결 모색
"아동 배려 회원가입 약관 마련"
상반기 '온라인세이프티' 마무리

광주 아동들이 디지털 환경 속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과 온라인 안전 교육·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기업과 어른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소속 아동권리옹호단 단원 18명은 '온라인세이프티' 활동으로 지난달 8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모여 아동의 권리 인식·증진과 온라인에서 아동 친화적인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논의에선 플랫폼 이용 시 아동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함께 제기됐다.

단원들은 이날 회원가입 할 때 읽어야 하는 약관이 아동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단어와 긴 문장으로 구성돼 있다는 주장과 함께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 제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15세 이상 볼 수 있는 웹툰에 선정적인 장면이 나오는 사례와 악성댓글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를 아동권리침해 요소로 지적했다.

단원들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놨다.

아동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으로 △부적절한 콘텐츠 시청하지 않기 △악성댓글 작성하지 않기 등을 꼽았다.

어른에게 바라는 점으로는 △회원가입 시 약관·동의 함께 읽으며 이해시켜 주기 △아동이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유해한 콘텐츠 올리지 않기 등을, 기업에 바라는 점으로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아동을 위한 플랫폼 개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적절한 광고 게시 △악플 실시간 자동 삭제 △정보공유 자체 검열 △댓글 필터링 강화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6월 활동에 참여한 단원들은 평소 쉽게만 생각했던 플랫폼의 난해함을 파악하며 간과하고 넘어갔던 아동권리 침해 사례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단원 정하영(14)양은 "평소에 자연스럽게 이용하던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법을 배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며 "나이가 더 어린 아동들은 더 정확한 교육을 통해 사용법 숙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분야별로 고려해야 할 권리 침해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단원 정서우(13)군은 "여러 디지털 플랫폼에서 아동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안내서(사용 설명서)와 아동과 관련한 앱을 만들어 아이들 관점에서 더 쉽게 이해되는 배려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고 심정민(15)군은 "아동들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 어른과 기업들이 나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직접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권리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무이행자인 어른, 기업, 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들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기업과 어른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며 "아이들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일과의 상당 시간을 할애하지만, 디지털 범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 적극적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 사회적 관심을 높여 해결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활동은 초록우산 상반기 프로그램인 '온라인세이프티'의 일환으로 앞서 지난 4~5월 온라인 안전 교육, 경험 공유, 범죄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6월에는 디지털 플랫폼 및 관련 서비스를 이해하고 아동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냈다.

상반기 활동으로 3개월간 진행된 '온라인세이프티'를 마무리한 아동권리옹호단은 오는 8월부터 '광주지역 옹호활동'을 통해 하반기 활동을 이어간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빗물저금통 활용해요 광주 서구 화운유치원생들이 22일 화운유치원에 설치된 빗물저금통의 빗물로 고추와 쑥갓 등에 물을 주고 있다. 빗물저금통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텃밭·청소용수·조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로 강우 시 하수도의 부하를 덜어주고 수질오염 방지 및 열섬 현상 완화 등 도시 환경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예고 3년생, 독립운동 기념품 판매수익 기부 '훈훈'

태극기 등 제작·판매 성금 마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전달

광주예술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직접 만든 독립운동 기념 엽서와 스티커 등을 판매하는 행사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22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예고 미술과 3학년 공미정·김도휘 양이 지난 19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을 방문해 자체제작한 독립운동 기념품을 판매해 얻는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앞서 광주예고 미술과 3학년 학생 7명(공미정·김도휘·염유진·김혜정·황은진·서지민·김현서)은 항일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팔찌, 태극기, 엽서, 스티커 등을 손수 제작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점심시간을 이용, 교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판매해 수익금 33만8600원을 마련했다.

한국사 수업을 들으며 학우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노력을 알리고 싶다고 생각한 공미정 양은 독립운동 관련 물품을 제작·판매하는 '건곤감리' 프로젝트를 계획해 친구들에게 제안했다.

각자 디자인과 회화 등을 공부하는 그의 친구들은 공 양의 프로젝트 제안에 재능과 특기를 발휘해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 제작, 전시 및 판매 계획을 수립했다.

학생들이 제작·판매한 물품은 △항일독립지사 7명의 인물 엽서 △무궁화 콘셉트 대한민국 우표 스티커 △기미독립 선언문 책갈피 △안중근 혈서 태극기와 진관사 태극기 모사품 △오방색과 태극문양을 매듭으로 표현한 팔찌 등으로 제작 비용은 전액 각자의 용돈으로 부담했다.

이들이 제작한 제품은 교내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아 엽서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팔렸다. 학생들의 취지에 공감해 기부금을 전달한 교사도 있었다.

공미정 양은 "물품을 구입하고 호응해 준 광주예고 학우들 모두가 프로젝트 참여자"라며 "팔찌를 차고 있는 동안만큼은 학우들이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도휘 양은 "친구의 계획을 듣고 처음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 잠시 고민하기도 했었다"며 "많은 학우들이 호응해 주고 그 덕에 기부까지 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광주예술고 학생들의 각별한 의미가 담긴 기부금을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윤준명 기자